



# 교육연합신문



2009년 12월 16일(수) 제 29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 학교탐방>>> 목포대학교

7면

지역특화 우수 약학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중인 목포대학교가 지난 10월까지 국책사업 및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을 확보하며 지역특화 우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기업탐방>>> 태산바이오

10면

태산바이오(대표 강철호)는 작년 8월 설립이후 음식물처리기 개발에 착수해 올해 6월 양산을 시작하고 ('태산-케어스 KS-6000, 8000')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학교탐방>>> 인천산곡여자중학교

16면

인천산곡여자중학교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속에서도 학생들의 인성과 학습능력이 있어서 지역을 뛰어넘어 인천의 대표적인 '명문' 중학교로 발돋움 하고 있다.

# '표절위원회' 생긴다

## 음악·어문·법률 등 전문가 10인 위원 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설치될 표절문제 전담 기구인 '표절 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표절위원회는 그 동안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가요계와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표절위원회는 음악·어문·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한국저작권위원

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월례회를 통해 표절 현안 검토, 표절 여부관련 구체적 심의 기준 정립,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조정, 표절 피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직한 창작 문화 정립 등 표절관련 정책 대응 전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어 논의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표절 사안에 대한 심의 기능 확충을 통해 명실 공히 표절

문제 전담 전문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절 위원회'의 표절심 의 기준 마련 및 심의 기능 확충과 관련해 몇 해 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추진해 왔던 '연구수행 결과 및 전자적 표절 검색 시스템 개발'과 연계해 그 내실화를 다지고 심의결과의 대외적 공신력도 높여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소재) 중강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 위촉 및 위원회 향후 운영 방안 관련 표절 관련 국내외 판례 동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위원 명단(가나다 순) 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과 교수),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남형두(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교수), 박영목(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이정호(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임희석(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 영흥화력본부 세계 속으로



영흥화력본부를 찾은 포럼 참가단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참가단 30명이 4일, 한국남동발전(주)(사장 장도수) 영흥화력본부를 찾았다.

최근 들어 영흥화력본부가 아시아를 넘어선 세계 무대에서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의 표준 모델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해외 주요 관련 단체 및 유력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영흥화력본부(본부장 백남호)를 찾은 '제3차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참가단은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로 구성된 경제분야 단체들로서 '포스트 BRIC's'로 불리는 만큼 석유, 석탄, 우라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상호간 '윈-윈' 전략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참가단은 '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및 기술 협력관계 구

축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다.

영흥화력본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전체적인 발전설비 현황과 친환경 설비기술의 효율적인 운용 성과, 그리

###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친환경 발전기술 알리

고 경제적인 유연탄 수입 경로와 석탄의 재활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특히 발전소 총 건설비의 25%가량인 8,100억원을 친환경 설비기술에 투자해 비산(분진)과 탄가루 등을 법정 배출 허용 기준치에 비해 1/3 정도 낮은 수치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연료비 및 CO<sub>2</sub> 절감에 따른 특혜 비용으로 소수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설비를 건설해 연간 6,996톤의 온실가스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흥수 주 타지키스탄 대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투자진흥청 사키르프 부청장, 카자흐스탄 산업도안부 압달라예바 부국장, 키르기스스탄 이브드라이모프 주한대사 등은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소의 모범적인 성공사례와 청정 석탄에너지의 활용 가능성, 혁신적인 무(無)배출 시스템에 대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참여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발해서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이날 '현장확인'이 남달랐다.

영흥화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참관단 방문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는 '에너지 자원 및 기술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방문한 중앙아시아 참관단에게 국내 친환경 발전기술의 우수성과 국가 전력기반 산업의 견고함을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ny@eduyonhap.com

www.chosun.ac.kr

# 세계를 향한 글로벌 검 조선대학교에서만 장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기본이 다르면 미래가 다릅니다 - 조선대학교

한국인을 바라보는 좋은 안목보다는 세계를 향한 넓은 시야를 키우는 대학교, 조선대학교는 글로벌의 넓이가 다릅니다.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기초교육원,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맞춤형 ESL 프로그램, 우수인재를 적극 지원하는 OJ(On Job Training) 제도까지, 지성의 깊이와 글로벌의 넓이를 모두 갖춘 조선대학교로 오십시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0학년도 1, 2, 3차 신입생 모집 • 입학기간: 2009. 12. 16(수) ~ 12. 24(목) 17:00 • 입학신청: 100% 인터넷신청(www.chosun.ac.kr)



전국시립특수학교에 참석한 학교장들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 전국시립특수학교장 연수회 개최

특수교육의 선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월 10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에서는 전국시립특수학교 교장협의회(회장 명선목)가 주최한 전국시립특수학교장 연수회 및 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특수교육의 비전과 특수학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재 특수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내년도 회장으로 현 회장인 명선목 인천혜광학교 교장이 연임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날 특별 강연에는 임안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명예교수가 '특수교육의 비전과 특수학교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임 교수는 "특수학교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학교 뿐만이 아닌 주변 여건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